

“코로나19 청정지역 제주로 오세요”

도, 위축된 관광시장 회복위해 홍보마케팅 심혈 최근 항공예약률 상승하며 제주행 감소세 둔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 등 제주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입도 감소 추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확진자 0명’의 ‘감염병 청정 제주’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관광 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우고 바이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3일부터 국내선 항공 예약 상황이 전주 대비 높아지며 내국인 관광객 입도 감소 추세가 점차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과 무사증 일시

중지에 따라 입도관광객은 지난 1월 20일 이후 80만2263명(2월16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7%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13일 2만4409명(전년동일대비 29.4% 감소), 14일 2만5936명(26.1% 감소), 15일 2만7679명(22.1% 감소), 16일 2만6120명(27.2% 감소)으로 점차 감소세가 줄며 평균 -45%대를 보이던 증감률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둘째 주말 평균 56%를 기록했던 답소율은 지난 주말 83.8%까지 올랐다.

이에 도는 ‘감염병 청정 제주’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에 돌입해 관광시장 조기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128억4000만원이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56억2000만원, 동남아권 등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38억원, 직항노선·국내외 홍보사무소 접근성 확충 34억2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예산 조정을 통해 제주 관광시장 최단기 회복을 위한 ‘제주관광 온라인 빅 할인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업계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도는 ‘코로나19’로 묶여있던 마케팅 예산을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해 관광공사·관광협회와 함께 국내외 마케팅, 접근성 확충 방안들을

논의하고 단계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마케팅 초기단계에서는 도·공사·협회의 SNS 공식채널을 통한 바이털 마케팅과 함께 대국민 온라인 홍보와 주요 포털 사이트 광고, 항공사 등 유관기관 공동 프로모션에 돌입해 안전 관광과 감염증 청정 제주 등 클린 제주 이미지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업체별 온라인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언론·대형 여행사 제주초청 팸투어 >대국민 제주여행 포스트링 공모전 >관광업계 공동 ‘타나오 기획전’ 빅 할인 이벤트 >एको 파티, 로캉스 지역관광상품 출시 >전국 주요도시 현장 로드홍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도 병행한다. 오로지자

‘코로나19’ 직격탄 각종 행사 기지개 도, 완벽 방역 전제 4월부터 순차적 개최키로

노인시설도 정상화 수준 중단된 무료급식도 재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방역을 전제로 일부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됐던 스포츠 행사들도 일정을 잡고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가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해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개최 가능한 행사를 추진해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은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의 정부·지자체 행사운영지침과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계획 수립과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 뒤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행사 시행 전 주최 기관은 발열체크 및 방역물품 비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주최 기관은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게 되며, 행사 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 관리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방역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를 위한 격리 공간(마스크 착용자만 출입)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도·행정시를 비롯한 읍면동 자생단체회의 등은 변경된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물품(비누·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충분히 확보·비치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지침 변경에 따라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정기총회와 제주시 이장단협의회 정례회의가 이달 중 다시 추진되며, 민간단체 중심의 소비촉진 범시민운동 등도 전개될 예정이다.

연기됐던 스포츠 행사들도 일정이 잡혔다. 제2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전도 테니스대회는 4월 11일, 제47기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2020 ITF 제주 국제주니어 테니스선수권 대회는 5월 17일, 2020 제주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는 5월 30일, 2020 제주신보 국제정경마라톤대회는 6월 13일 진행된다. 당초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정이던 제19회 제주워킹 그랑프리 대회도 6월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잠정 운영을 중단한 노인 시설도 정상화되며 무료 급식도 재개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경로식당 등 도내 어르신 이용시설 492개소가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도 조정·재개된다. 오로지자

교육공무직 인사 단행 과정 ‘시끌’

학비노조 “원칙없다” 반발 도교육청 예고안 일부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교육공무직 노조가 “원칙 없는 부당 전보”라고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기존에 예고했던 인사를 일부 조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17일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학비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공무직 473명(전보 329명, 신규 144명)에 대한 인사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전보유예를

신청하거나 정년이 1년 6개월 남은 근로자가 포함되는 등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인사가 이뤄졌다는 게 학비노조 제주지부의 주장이다.

학비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의 건강 상의 이유로 학교장 전보 유예를 신청한 행정실 무원을 본인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배로 출근해야 하는 도서지역 학교로 전보했다”며 “인사 예고이니 변경될 수 있는냐는 물음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이 역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현 사용부서의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을 전보한다’는 기준 등과 무관하게 ‘운전을 잘 할 것 같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직속기관에 조리실무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문제 제기에 도교육청은 기준에 예고했던 인사 내용을 일부 조정해 이날 확정했다. 이를 통해 9명의 근무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과의 논의를 거쳐 수용할 부분을 반영했다”며 “(교육공무직 인사와 관련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아이구, 따뜻하네...” 오일장이 열린날인 1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위에 연 몸을 녹이고 있다. 강희민기자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JDC 300억원 직접 투자 의료·연구시설 등 입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복지재단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서비스센터가 건립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총 300억원을 직접 투자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전체 단지의 관리·홍보 기능을 갖추고, 지역에 부족한 의료·연구시설, 의료 관련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을 입주시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역 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치는 헬스케어타운 내 중앙관리

센터 부지 1만1743㎡이며, 건축면적은 4267㎡, 건축연면적은 약 9000㎡(지상 3층)로 이뤄졌다. 착공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되며, 완공이 이뤄지면 의료기관과 연구실, 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앞서 JDC는 의료서비스센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12일에는 조달청에 신축공사 발주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JDC는 의료서비스센터 설계 단계에서 신규 제정된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을 반영하는 등 시설안전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의 건의를 수용해 제주지역 업체가 이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반영키로 했다.

송병기기자 seb1119@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20 학년도 관음사 불교문화대학 제32기 불교문화대학원 제14기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 2020학년도 불교문화대학 32기, 대학원 1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시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불교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제주불교문화대학에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선한 벗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관음사 **제주불교문화대학원(원)**

제주불교문화대학 제32기

- 교육과정: 1학년 2학기제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1학기	2학기
불교입문 부처님일대기 예불학습 수계 및 수련회	불교개론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특강 불교미술의 세계 - 도일스님(동국대) 화엄불교 - 해주스님(동국대 명예교수) 티벳불교 - 김성철 교수(동국대 교수)

교수진 학장스님, 부학장(재량)스님
 ▲ 관음사: 법성스님, 명현스님, 증진스님, 덕현스님
 ▲ 월라사: 지오스님 ▲ 보현사: 자경스님
 ▲ 불탑사: 희정스님 ▲ 서산사: 선명스님
 ▲ 동법사: 정목스님 ▲ 연봉사: 상오스님
 ▲ 오동선원: 재용스님 ▲ 고관사: 관우스님

개강일 3월 19일(목) 저녁 7시 30분

졸업 필수조건
출석 80%, 현장학습 및 봉사 | 3회 이상 출석

제주불교문화대학원 제14기

- 교육과정: 1학년 2학기제
- 강의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1. 경전연구반

1학기	2학기
보현행원품 원각경 육조단경	상좌부 대반열반경 보리도차제론

모집정원 선착순 50명

2. 전통사경반
 ▲ 교육과정: 관세음보살 42수 사경
 ▲ 대학원 전통사경반 특강:
 전통사경의 사계 - 김경호(한국사경명장)
 행오스님(전통사경연구회장)

▲ 졸업작품 전시회 예정
 ▲ 강의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 개강일: 3월 16일(월)
 ▲ 모집정원: 선착순 20명
 ※ 재료비 별도

* 교육접수 문의: 제주시 신성로 50 (도남동) 보현사 내 (T. 064-722-6830)
 * 입시요강 * 응시자격: 불자 및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1매
 * 등록금: 40만원 (교재비 포함) * 성지순례비 별도
 * 입학식: 2020년 3월 14일 오후 2시 보현사 내 불교대학 강당